

불자외국인 위한 노래한마당 열린다

광주외국인근로자센터, 7월 10일 쉼터 마련을 위한 음악회

불자 외국인근로자 전용공간 마련을 위한 음악회가 열린다.

광주외국인복지센터(센터장 이주성)는 7월 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에서 외국인근로자 쉼터 기금 마련을 위한 '아름다운 꽃이여라' 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에는 BBS방송진행자 정목 스님을 비롯해 가수 안치환, 천음실내악단 등이 나서 쉼터 마련을 위해 힘을 보탠다. 또한 이번 음악회 준비를 위해 노력하다 최근 입적한 범능 스님의 노래 영상이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행사를 준비 중인 이주성 센터장은 "이번 공연은 이주민들과 지역민들에게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고 수용하여,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만들어 가는데 더 이상 거부감이 들지 않도록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호남지역에는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전용 쉼터 공간이 없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불교적 보살핌을 받지 하는 경우가 많다"며 "쉼터 공간을 통해 스님들과의 상담, 신앙프로그램 등을 진행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행사는 저녁 7시 해남 미항사 주지 금강 스님의 사회로 범능 스님의 유작앨범인 '나 없어야' 영상음악이 상영된다. 이어 정목 스님 이야기와 동요, 가수 안치환 공연, 천음실내악단 연주 등이 진행된다. 정목스

정목 스님 · 안치환 등 나서

쉼터서 법률 · 신행상담 진행

다문화 자녀 교육도 병행

님은 이야기와 동요를 통해 함께 어울려 살아가야 되는 다문화사회의 중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치유의 명상음악도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근로자 쉼터는 대부분 불교 국가에서 한국으로 일하러 온 외국인들에게 제공되는 작은 쉼터 개념으로 일지리를 잃은 근로자를 위한 한시적 주거공간과 휴식처다.

법 테두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



광주 외국인복지센터에서 열린 연등초 만들기 행사에 참여한 다문화 가족들이 환하게 웃고있다.

로자들에게 법률 상담과 운동 및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또 각국 전통문화 활동으로 고국 친구들과 소통하는 장소도 제공된다. 특히 센터가 위치한 곳은 공단과 도시, 농촌의 접경지역으로 향후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의 정서 인성교육과 부모교육, 취업상담 등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광주외국인복지센터는 2006년 10월에 광산구 비아동에 개설돼 외국인 근로

자와 다문화가정 이주민 여성들에게 한국어 교육과, 법률상담(이직, 폭력, 임금체불, 의료)을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아이들에게는 미술교실, 만들기, 학습지원 사업 등을 진행한다. 현재 센터에는 캄보디아, 네팔, 베트남, 스리랑카 이주노동자와 중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몰골 등의 다양한 이주여성 600여명의 외국인들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다. (062)962-3395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신광사, 호국영령을 위한 천도재

6월 보훈의 달을 맞아 광주 신광사가 호국영령을 천도재를 개최했다. 광주 신광사(주지 경주)는 6월 21일 경내 대웅전에서 광주지방보훈청(청장 전용범), 대한민국의전통문화재단(회장 최영민), 광주시지부(회장 최영민) 회원 80여명, 신도 등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추모천도재'를 개최했다. <오른쪽 사진>



신광사는 2001년 11월 광주지방보훈청과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6월마다 추모천도재를 지내고 있다.

경주 스님은 "영령들의 애국정신과 희생정신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담 스님은 법문에서 "불교는 참 생명을 찾아가는 종교로, 애국지사가 남을 위해 희생한 것 또한 참 생명을 살리는 것"

이라며 "위령제는 오늘날 우리가 남을 위해 사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중요한 행사"라고 강조했다. 전용범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정전 60주기를 맞아 이번 천도제가 국민들에게는 보훈에 대한 관심과 나라사랑 정신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포교사단, 예비포교사 교육 진행

포교사단 전북지역단(단장 주정기)은 6월 23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예비포교사 포교활동 소양교육을 실시했다.

김진수 전문포교사와 이원일 전북불교회관 사무국장이 강사로 나선 이날 교육에서는 포교활동의 이해, 불교교리실천(복지) 이해, 스피치 이론, 불교의식(목탁) 습의, 분야별 현장포교사례 등의 교육이 진행됐다.

올해 총 35명의 예비 포교사를 배출한 전북지역단은 예비포교사들에게 월 1회 이상의 사회봉사활동과 사찰봉사활동, 연불봉사활동, 자체의식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 연수과정은 거친 예비포교사들은 9월 정식으로 포교사 품수를 받는다.

한편 전북지역단 군 포교팀(총괄팀장 이성강 포교사)은 전북 일선의 제6탄약창 호국 장영사에서 부대안전지원 및 호국영령 추모제를 봉행했다.

이성강 포교사는 "부대장병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의미를 담아 법회를 마련했다"며 "전 장병들이 군복무를 마치고 안전하게 가족의 품에 돌아 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조선왕조 실록 지킨 희묵 대사 기리며

내장사, 6월 22일 희묵대사 · 총의사 추모다례제 봉행



정음 내장사에는 200여 명이 모여 희묵 스님과 의승군을 추모했다.

임진왜란 당시 전주 경기전에 보관 중이던 조선왕조실록과 태조어진을 내장산으로 이안하고 수호한 승방장 희묵 스님과 안의 · 손홍록 등 총의사들의 공덕을 기리는 추모다례제가 6월 22일 정음 내장사(주지 지선)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다례제에는 선운사 회주 범연 스님, 벽련암 대우 스님, 진공 스님, 선운사 총무 심학 스님과 김생기 정음시장, 유성업 국회의원, 이익규 정음시 부의장, 이석문 정음교육장, 안의 · 손홍록 선생의 후손들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상단불공과 영산작법, 희묵대사와 총의사 행장소개, 헌다, 헌향, 봉행

사, 추모사 등이 진행됐다.

지선 스님은 봉행사에서 "총의사 후손들과 협의하여 당시의 정음 선비들과 희묵 스님을 기리기 위한 다양한 추모 행사를 병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희묵 스님을 비롯한 의승군이 수호한 조선왕조실록은 조선 태조에서부터 철종에 이르는 25대 472년, 17만 2000여 가지의 일과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조선왕조의 공식 국가기록으로 유네스코 선정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돼있다. 실록은 전란 중 춘추관, 총주, 성주 사교가 소실됐지만 전주사고 실록이 남아 왜란 후 다시 제작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불심으로 노래하며 함께 소통해요"

백양사, 음악과 이야기가 만나는 열린법회 화제



백양사 포교국장 수안 스님도 음악회에 참여해 노래와 함께 따스한 말을 전했다.

"그랬구나, 그랬구나. 이른 봄 돌아오는 푸르른 앞파리는 겨우내 머금은 눈물이었구나"

백양사 포교국장 수안 스님의 글에 인디언수니가 곡을 붙여 만든 '그랬구나' 노래가 6월의 기타 선율에 맞춰 백양사 안마당에 흐른다. 콘서트 장의 장면이 아닌 백양사 우화루에서 열린 일요일법회의 모습이다.

장성 백양사(주지 진우) 일요일법회는 매월 둘째, 넷째주 일요일에 열리는 이야기음악법회로 수안 스님과 광주에서 활동 중인 가수 인디언수니가 음악과 불교의 이야기를 전달한다. 이날 법회에서 수

안 스님은 자신이 만든 노래와 노래에 얽힌 불교이야기를 90분에 걸쳐 풀어냈다.

수안 스님은 노래와 함께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과 같으며, 도리어 내 자신이 자유롭지 않게 된다"라고 강조하며, "내 마음과 같지 않아서 서로 어울리며, 이야기하고 살아간다"고 말했다.

수안 스님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법회를 만들고자 음악법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개최의미를 설명했다. 법회가 열리는 우화루는 200여평의 공간에 불교문화 갤러리, 전통차 시음을 같이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금산사, 하안거 포살법회 및 교구종회

전주 금산사(주지 원행)는 6월 28일 대적광전에서 불기2557년 계사년 하안거 포살법회와 교구종회를 개최했다.

포살법사로 나선 성우 스님(금산사 부주지)은 92명의 동참 스님들에게 <범망경 보살계포살본>을 바탕으로 <불설범망경> 보살십지품, 십중대계, 사십팔경구계를 설하며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청정한 몸과 마음으로 깨달음을 구하고, 중생을 교화하려는 원력을 다짐했다.

성우 스님은 "포살은 수행자로서의 본

분을 잃지 않고 정진하며 사회로부터 신뢰받는 수행자로 거듭나자는 다짐을 하는 자리"라며 "지혜와 자비로 못 중생을 이끌어가는 참된 수행자가 되자"고 당부했다.

이어 금산사는 보제루에서 교구종회를 열고 산중총회 개최, 전주연꽃활영대회 개최, 연꽃축제 봉행, 어린이 여름수련대회 개최 등을 의결했다. 한편 차기 주지선출을 위한 금산사 산중총회는 8월 22일 열린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경기불교문화원, 왓붓다랑시 서울법당 개원

6월 30일 경기도 화성에서

경기불교문화원(원장 진철희)은 6월 30일 경기도 화성에서 태국불교 세계화 단체인 왓 붓다랑시 한국지부 서울법당 개

원식을 개최한다. 경기불교문화원과 호주 왓붓다랑시는 4월 8일 문화교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개원식에서는 태국 스님 40여명을 비롯한 태국 불자들이 대거 참여할 예정이다. (031)298-9998

현대불교신문 · 미안마문화원 공동캠페인

자비의 미안마 돕기

행복한 나라, 미안마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합시다

안녕하세요!

미안마 친선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열심히 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용림, 김혜옥 불자입니다.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의 놀라운 성과에 불자로서 큰 자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안마의 어려운 환경은 저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저희 불자들의 작은 관심이 미안마 국민들에게는 더 없는 큰힘이 되고 있습니다. 불자님들의 작은 보시가 그들에게는 생명의 물이 되고, 미래를 위한 교육이 되며, 부처님을 받드는 신심이 됩니다.

미안마 극빈층 어린이의 맑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을 향한 그들의 진실한 믿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속적인 보시와, 봉사활동, 자매결연 등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불자님에 맞는 방법으로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미안마연방정부 추대 미안마친선대사 김용림 · 김혜옥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지켜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맑은 미소로 성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기불교의 원류 미안마... 현대불교신문과 미안마문화원은 '자비의 미안마 돕기' 캠페인을 통해 불교전통의 아름다운 나눔의 향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 극빈마을 공동우물 파주기 지원

식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극빈 마을에 불자님의 이름으로 공동우물을 지원합니다. 개인 또는 단체로 우물건설 봉사도 지원 가능합니다.



- 신부 출가의식 지원

신부는 미안마인이 10세 전후로 해야 하는 출가체행 행사이며 미안마인의 가장 큰 기쁨의 행사. 비용이 없어 신부 의식을 행하지 못하는 빈곤 가정에 비용을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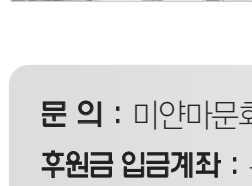
- 코리아 종합 기술대학교 건립비용 지원

나인피아에 건설중인 코리아기술대학교는 미안마 현지인을 대상으로 외국어, 컴퓨터, 자동차, 등 실용기술을 무상교육하여 빈곤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010년 12월 12일 신축공사가 시작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어린이 교육지원

교육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아원, 초등학교 설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학용품 및 교육자료 지원에 불자님들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 후원물품 지원

후원금 외에 생활에 필요하고 전달 가능한 것이라면 어떠한 물품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먼저 담당자와 통화 하신 후 보내주시면 봉사단 방문 시 현지에서 직접 전달 합니다.

- 봉사단 참여

미안마 문화원을 통해 미안마 현지에 대한 봉사단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 미안마문화원 상명민 국장 02)733-5670

현대불교신문 이동경 부장 02)2004-8214

후원금 입금계좌 : 농협 301-0016-0537-91 국제불교지도자협회 * 후원물품은 현대불교신문사 담당자 통화 후 보내주시면 됩니다.

* 후원내역과 전달내용은 현대불교신문 지면을 통해 정기적으로 공지합니다.

현대불교 · 미안마문화원